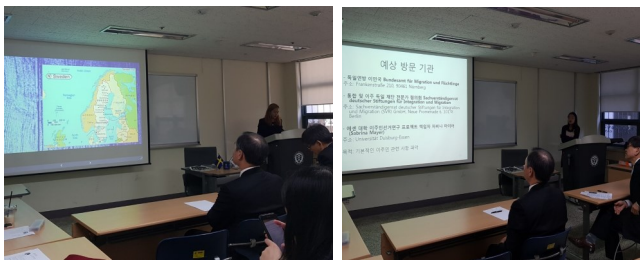


[현지조사 발표회]



10월 17일
최정애 (유럽/박사) 독일 현지조사 계획발표
한정림 (유럽/박사) 스웨덴 현지조사 결과발표

[안동 연구발표회]



10월 27~28일 안동에서 연구계획서발표회가 개최되었다. 발표 후, 각각의 연구테마를 가지고 토론하여 연구계획서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.
PENG BO (중국/박사) “중화에서 중국까지”
YIN YUE (중국/석사) “세계화 속의 민족국가 정체성”
최정애 (유럽/박사) “이주배경을 가진 독일 국적자의 정당 선호”
GUO YILEI (유럽/석사) “이주민과 유럽의 정체성 문제”
LYU FEIYIN (일본/석사) “중국과 일본 통용한자 비교”

[일본 필그림 워크숍]



11월 25일
연세·게이오·푸단 원격공동강의의 필그림워크숍이 일본에서 개최되었다. 경제통합, 정치안보, 환경과 에너지, 문화와 이민, 사회비교 등을 주제로 학생들의 팀별 토론 및 발표가 있었다.

[대학원생 논문발표회 참가]



11월 2일 한국정치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였다.
MENG FANQI (일본/석사) “정치정보 습득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”
ZHANG YINGXUAN (중국/석사) “한국과 내몽골 지역협력의 모색”
YIN YUE (중국/석사) “세계화 속의 민족국가 정체성”
YE YANGYANG (동남아/석사) “개인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”
YANG JIN (중국/석사) “중국 국제 원조 체제”

[제39회 지역학 학술제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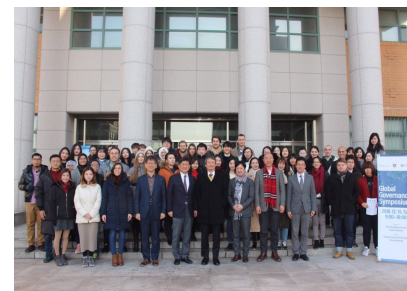
10월 25일
‘러시아란 무엇인가’를 주제로 엄구호 (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/아태지역연구 소장)의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.

[핀란드 대사 초청 특강]



11월 26일 Eero Suominen 핀란드 대사를 초청하여 “Finland: the Happiest country in the world”를 주제로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.

[글로벌 거버넌스 심포지엄]



12월 15일 본교에서 연세·게이오·푸단 원격공동강의의 글로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.